

##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 1차

<b>북클럽 팀명</b>	Book학생						
<b>운영일시 / 장소</b>	일 시 : 2023 년 04 월 12 일( 수 요일) / 장 소 : 도서관 C.square						
<b>참석자 명단</b>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b>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b>	<p>이번 모임에서는 타일러 라쉬의 &lt;두 번째 지구는 없다&gt;라는 책을 각자 읽고 미리 정한 질문에 대한 답을 자유롭게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p> <p>[프롤로그]</p> <p>먼저 이 책을 선정한 친구에게서 해당 책을 고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구가 위험하다. 항상 어디선가 들려오는 말이지만 사람들은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그러나 예년보다 벚꽃 개화시기가 앞당겨진 것을 보니 정말로 내가 살고 있는 지구온난화가 남일이 아니구나 실감하게 되었다. 앞으로 인류가 지구에 온전하게 남아 있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할까.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이 책을 통해 당장의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과제가 무엇인지 논의해보기 위해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다.</p> <p>▶질문1) 본인이 생각하는 제일 심각한 환경 문제는 무엇인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 해나갈 것인가? (김**) 내가 생각하는 제일 심각한 환경 문제는 갈수록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으로 인하여 사계절이 불분명해진다는 것이다. 이제는 봄과 가을은 거의 사라지고 있다. 특히나 작년 여름만 생각해도 강도가 센 태풍이 몇 차례 찾아왔고, 폭염과 홍수의 빈번한 발생이 뉴스에 자주 보도되면서 기후 변화를 더 체감할 수 있었다. 옷을 구매하지 않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여행을 가지 않는 등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면 안 되는 일이 많다. 환경 보호를 해야 하는 걸 알고 있지만, 가끔은 오직 나만의 편함을 추구하기 위해 욕망의 감소나 절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 여행도 떠나고 싶고, 옷도 시즌별로 계속 구입하고 싶고, 카페에서도 편하게 일회용 컵에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며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알게 되었고, 두 번째 지구는 없기</p>						

때문에 현재 있는 걸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됐다. 개인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창한 꿈을 이룰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나만의 노력으로 환경을 보호하는데 동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카페를 갈 때 텀블러 챙기기, 이면지 사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작은 노력부터 실천하고 있다.

(박\*\*) 일회용품 사용, 그중에서도 카페에서 사용하는 테이크아웃컵의 무분별한 사용이 주위에서 찾을 수 있는 환경 문제 중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시험기간에 학교를 둘러보면 학생들 손에 들려있는 일회용 컵, 쓰레기통 주변에 쌓인 다양한 카페의 컵들을 보면 놀라울 수준이다. 한국의 커피 소비량은 세계에서 최상위권이다. 주변을 둘러만 보아도 카페를 심심찮게 볼수있다. 그렇다면 이 카페들이 하루, 일주일, 일년간 사용하는 일회용품은 얼마나될까.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했던 경험을 떠올리면 텀블러를 사용하는 손님은 하루에 350명 중 10명정도이다. 음료를 마시는 몇분, 몇 시간을 위해 몇 십년동안 썩지않는 플라스틱을 사용한다는 게 아이러니하다.

나는 스무 살 때부터 텀블러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젠 일회용 컵을 사용하느니 차라리 마시지 말자 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되었다. 카페를 10번 가면 8~9번은 텀블러를 사용한다. 환경을 지킨다는 뿌듯한 마음과 약간의 할인도 받으니 일석이조이다. 하지만 더 노력해야 할 점이 있다. 쓸 데 없이 소유욕이 있어서 텀블러를 하나 둘 씩 자꾸 사는 것이 문제다. 텀블러를 제작하는 것 자체도 환경적으로 나쁘기 때문에 하나의 텀블러를 꾸준히 쓰는 것이 중요한데 나는 자꾸 예쁜 텀블러를 보면 눈이 돌아간다. 사실 이번에도 콜드컵을 하나 구매했다. 해외 직구로... 미국 매장에서 우리 집으로 오는데 소모된 에너지와 그 밖의 환경 문제를 생각하면 나는 입만 산 환경운동가 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젠 정말 깨달았으니 지금 가지고 있는 텀블러를 아끼고 오래오래 쓰리라 다짐한다.

(오\*\*)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이다. 아무래도 직접 눈에 보이는 환경문제가 제일 심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 같다. 당장 이 스터디룸을 벗어나 도서관을 둘러보면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는 사람이 대다수일 것이다. 또한 기숙사에 사는 입장에서 주말만 지나면 한 층의 분리수거함에 플라스틱이 넘치다 못해 쌓여있다. 책에서도 한국의 가계 소비 세부 범주를 생태발자국 크기순으로 나열한 1위가 바로 음식으로 나온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찾아보니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연간 소비하는 페트병은 56억 개로 막대한 양의 플라스틱이 매년 사용되고 버려지고 있었다. 물론 생활을 하다 보면 쓰레기가 생기는 걸 아예 막을 수는 없다. 그래도 적어도 커피숍에서 플라스틱 컵이 아닌 텀블러에 받는 것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이고,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 면에 있어 지금 우리 북클럽원들 모두 텀블러를 사용하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다고 생각한다.

(신\*\*) 책의 저자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라는 표현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다. 대기오염인데 먼지라고 부르는 것에는 심리적 반응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다. 물론 사전적 정의로 따지면 미세한 입자의 먼지를 이르는 말이긴 하지만 오염된 공기를 마신다는 것과 먼지를 마신다는 것에 차이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최근 육안으로도 느낄 수 있었던 대기오염의 상태는 내가 살면서 겪은 것 중 가히 최악이었다. 바로 눈앞에 있는 산과 건물의 형체가 이토록 뿌옇고 흐리게 보이다니 나는 감염병을 떠나서 이러한 탁한 공기 때문이라도 마스크를 벗기 힘들겠다고 생각했다. 지금 내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아주 간단한 것들이다. 일회용품 쓰지 않기, 가까운 거리는 걷고 나머지는 대중교통 이용하기, 재활용과 재사용을 생활화하기 등. 더 나아가서 내가 완전한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혼자 살게 된다면 나의 보금자리를 FSC 인증을 비롯한 환경을 생각한 기업의 제품으로 채워나가고 싶다. 물론 지금 가진 것들로 앞으로까지 쓸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만 말이다. 또 플로깅 같은 직접 발로 뛰는 환경 보전 활동에도 힘쓸 것이다.

▶질문2) 책을 읽고 새로 알게 된 혹은 몰랐던 기후 위기에 대한 사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나의 생각은?

(김\*\*) 첫 번째, '거대한 산불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아니지만, 최근 산불과 관련된 뉴스를 너무 자주 접하고 되는데, 심각한 기후 위기 문제 중 하나라 생각해서 언급해 보았다. 불과 몇 주 전에 우리 인근 지역에 산불이 크게 난 적이 있는데, 이때 경각심을 더 갖게 된 것 같다.

두 번째, 코로나 같은 감염병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감염병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빠르게 지나갔다고 생각한다. 이번 코로나는 발병된 지 4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았다. 감염병이 기후 위기와 관련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관련이 있어 기후 위기는 생각보다 많은 문제를 수반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 세 번째, 평균 온도가 6도까지 오르면 생물의 95%가 멸종한다는 사실 또한 새롭게 알게 됐다.

(박\*\*) 앞 질문에서 텀블러를 사용하면서 뿌듯함을 느낀다고 답했는데, 애초에 커피 소비량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커피나무는 열대 기후에서 자라는데 전세계적으로 커피 소비량이 많으니 더 많은 커피나무를 심기 위해 기존에 있던 나무를 없앤다고 한다. 그럼 원래 그 자리에서 자라던 식물이 생태계에서 했던 역할의 값은 어떻게 될까. 다른 식물을 제거하고 커피나무를 키우면 그 지역의 공기 질은 어떻게 바뀔까? 또, 배와 비행기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온실가스와 카페에서 커피를 팔며 발생하는 쓰레기들을 생각하면 커피 한 잔을 사 먹는다는 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다. 나는 밥을 먹고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산 다음 크게 한 입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곤 “카, 역시 싸악 내려주는 아메

리카노”라고 한 마디 하는 게 일상이었다. 책을 읽으면서 나를 나름 환경 지킴이라고 생각했던 게 부끄러워질 정도였다. 환경 파괴가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문제가 일어나도 단순히 내가 죽은 뒤 일어날 것이라 생각한 적도 있다. 하지만 환경은 당장 눈 앞엔 보이지 않아도 점점 나빠질 것이고 내가, 아니면 나의 가족이 살던 어느 날 한 순간 폭발할 것이다. 앞으로 더 경각심을 가지고 더 관심을 기울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생각이다.

(오\*\*) 환경에 관한 용어에 대해 이번 책을 읽고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가 대부분이 알고 있는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라는 말은 그 말만으로 경각심이나 위기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이제는 너무 많이 들어 아무 감정도 들지 않는 지구온난화라는 단어와 ‘음~ 기후가 변화했구나.’라는 단순한 생각이 들게 되는 ‘기후변화’라는 말보다는 ‘기후위기’라는 말을 적극적으로 써 스스로에게도 지금 우리 지구가 처한 현실을 좀 더 심각하게 드러내는 표현을 써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신\*\*) 인류가 지구 자원을 사용한 양과 배출한 폐기물 규모가 지구의 생산 능력과 자정 능력을 초과하는 날을 ‘지구 생태용량 초과 날’이라고 한다. 이는 인류가 그해에 주어진 생태 자원을 그날까지 모두 사용했다는 걸, 이후부터 연말까지는 미래 세대가 사용할 몫을 가져다 쓰는 셈이라는 것을 뜻한다. 1970년대 초반만 해도 인류는 지구의 생태용량을 초과하지 않았다. 지구 생태용량 초과 날은 2016년 8월 8일, 2019년은 7월 29일로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 지구 평균 온도가 6°C 올라가면 생물 중 95%가 사라진다. 앞으로 십 년 뒤에 또 그리고 몇 십 년 뒤에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오르면 인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느끼고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전 세계가 힘을 합쳐야 할 때다. 내가 생각해 소비자들이 환경을 위해 작은 실천을 하는 것보다는 정부와 기업에서 에너지 생산 방식을 바꾸거나 환경 파괴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지구를 살리는 데 훨씬 이로운 방식이라 생각한다. 물론 작은 실천도 놓쳐서는 안 될 일이다. 보태서 굳이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요구하고 소리치는 것이다. 환경을 이롭게 해야 할 당위성을 계속 주장하는 것이다. 지금 내가 살고 있으며 앞으로 후대에 물려줄 소중한 터전을 지키려면 말이다.

#### 그 외 나눈 이야기

- 나는 환경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 다 같이 환경을 위해 실천해볼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 자신이 아는 환경 관련 축제나 기념일 공유
- 책을 읽고 알게 된 새로운 단어 공유 (에코테러리즘, 그린워싱 등)
- 책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은?

[에필로그]

평소라면 잘 생각해보지 못했을 '환경'이라는 주제에 대해 관련 책을 읽고 다 함께 자유롭게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머지 않은 미래, 우리의 후손들이 살게 될 먼 미래까지 우리가 자연환경을 공존의 대상이 아닌 우리의 보금자리로 어떻게 보존하고,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진]

[활동] - 각자가 환경을 지키는 법

##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 2차

<b>북클럽 팀명</b>	Book학생						
<b>운영일시 / 장소</b>	일 시 : 2023 년 05 월 3 일( 수 요일) / 장 소 : 도서관 C.square						
<b>참석자 명단</b>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b>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b>	<p>이번 모임에서는 김상현의 &lt;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gt;라는 책을 읽고 미리 정한 질문에 대한 답을 자유롭게 하며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p> <p>[프롤로그]</p> <p>먼저 이 책을 선정한 이유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p> <p>4학년이 되고, 졸업을 앞두는 시점이 되자 ‘취업하지 못하면 어찌지?’하는 걱정과 ‘4년 동안 과연 나는 무엇을 했지?’라는 의문과 자꾸만 남들과 나를 비교하며 자존감이 낮아지는 일들이 생겨났다. 이 책의 저자 김상현 작가는 누구나 갖는 불안과 걱정, 후회와 같은 감정들을 대하는 방법과 더불어 내 삶의 ‘중심을 잡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 책을 읽고 각자 자신에 대해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선정하게 되었다.</p> <p>▶질문1)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정적인 길로 쉽게 빠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삶의 중심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는 내 삶의 중심(=내 삶에 있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p> <p>(신**) 누구나 그렇듯이 나 또한 자유를 꿈꾼다. 지금 내가 억압받는 삶을 산다는 뜻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만의 선택을 존중받는 그런 삶 말이다. 가끔씩 문득 챗바퀴 같은 일상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있다. 결과적으로는 취업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으므로 내 의지가 반영된 일이 맞다. 그 속에서 소소한 즐거움과 나만의 힐링 요소가 존재하느냐가 내 삶의 중심을 찾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나는 똑같은 일상 속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내려 노력한다. 그리고 기록함으로써 지나간 일상을 헛되지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과거의 기록을 통해 현재의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뤄왔는지 확인하고, 막상 부딪혀보면 별 거 아닌 일들에 대해 회고하기도 한다. 삶의 중심이 흔들릴 때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제법 큰 도움이 된다.</p> <p>(김**) 스스로 삶의 중심을 잘 잡기 위해, 몇 년 전부터 스스로에게 약속한 것이</p>						

있다. 첫 번째, '현재의 나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지나가는 일에 후회를 하기보다는 현재 최선을 다해서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한다. 후회를 한다고 해서 결국 달라지는 건 없다. 가끔 해야 하는 일을 정말 하고 싶지 않을 때, 미래의 후회할 나의 모습을 생각하며 다시 마음을 다잡는 편이다. 두 번째,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예전에 방탄소년단 'LOVE YOURSELF' 시리즈를 통해 많은 위로를 받은 적이 있다. 그들이 던지는 메시지를 통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그중 하나가 스스로를 남에게 비교하지 않아야 한다는 걸 배웠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불행은 시작되는 것이다. 행복의 기준은 스스로 기준을 정해야 한다. 기준이 없는 순간 남과 비교할 확률이 높아진다. 내가 정해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이루지 못한 스스로를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나를 돌아보는 것이다.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 분석해보고 인정하는 것이다. 현재 이 두 가지가 삶의 중심을 잘 지탱해 주면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다.

(박\*\*) 가족이다. 언제나 나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어디서도 구하지 못하는 내 편이라 생각한다. 짜증을 내고 툅툅거리도 하루만 지나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웃으며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족 뿐이다. 그래서 힘든 일이 있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멀리 떨어져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엄마 아빠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딸이 되고 싶어서 나쁜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은 철 없고 부모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막내일 뿐이라 앞서 말한 것들을 지키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이처럼 내 삶의 중심이자 목표는 우리 가족이다.

(오\*\*) 나는 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면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듯이 나도 지금은 '취업'이라는 큰 목표가 있지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으니 취업을 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다 할 수 있을까? 꼭 취업만이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이 들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니, 나는 '성취감'인 것 같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그걸 해냈다는 성취감이 내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것 같다.

▶질문2) 책을 읽고 마음에 와닿았던 파트나 구절이 있다면?

(신\*\*)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그냥 살다 보면 가끔 그런 일도 생기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유연하게 대처하다 보면 삶에 틈이 생기게 됩니다. 그 틈으로 알 수 없는 행복이 들어오기도 하고, 귀한 사람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대로, 그렇게 그대로 놓아줄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내 기분과 시간을 뺏길 필요는 없으니깐요. 그 틈 사이로 좀 더 행복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탓으로 틈을 메우지 마세요." 나는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면 항상 그 원인을 찾곤 했다. 나의 문제든 상대의 문제든, 혹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문제든. 하지만 가끔은 그냥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과한 의미부여나 걱정은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된다. 한 발 멀리서 바라볼 줄 아는 유연한 사고의 필요성이 나에게 와닿았다.

(김\*\*) "수많은 도전을 통해 제가 겪은 한 가지 교훈은 도전한다고 해서 손해 보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문장이다. 항상 시작은 어렵다 막상 시작하고 나면 별거 아닌 일인데 말이다. 도전을 즐기는 성격이 아니고, 혹시나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인 것 같다. 피테의 "인생은 다음 두 가지로 성립한다.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떠오른다. 평범한 삶을 추구하는 건 좋으나, 그저 그렇게 살아간다면 재미를 잃은 삶이다. 한 번뿐인 인생에서 도전하는 삶은 아프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 끝은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도전을 통해 얻은 경험은 결국 어딘가에 도움이 됐다. 도전할까 말까 망설이다 안 하게 되면, 결국 얻을 수 있는 기회마저도 스스로 날려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도전은 나를 성장하게 하므로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박\*\*) 첫 파트의 "우리는 대부분 '좋아하는 일'을 찾기보다 '해야만 하는 일'을 교육받아 왔다는 것"이다. 요즘 하고 있는 생각과 일치한다. 학생 시절부터 대학교에서 원하는 입학생이 되기 위해 17살부터 생활기록부에 3년 간 동일한 진로를 적어야 했다. 인생을 제대로 살아 보기 전부터 남은 80년의 인생을 결정해야 했고, 나름의 노력으로 진로 탐색을 해서 대학교에 입학하더라도 마찬가지다. 4년간 이 전공이 나에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은 끝이 없으며 취업할 시기에는 더하다. 대학 전공과 다른 진로를 정하려면 면접 시에 왜 그랬냐는 질문이 필수로 들어온다. 하다 못해 직장을 잡고서라도 바뀔 수 있는 게 진로인데 직무를 바꾸기란 참 어렵다더라. 그래서 나는 요즘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에 대한 고민이 크다. 어떤 일을 해야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지, 내가 잘하는 일은 무엇일지 등 근본적인 것부터 다시 잡아가는 중이다. 저자는 일단 무엇이든 해보라고 조언한다. 그리고 해봤던 일 중 유독 어떤 일에 끌렸고 어떤 걸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했으며 어떤 부분이 계속 생각나고, 꾸준히 반복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금의 나에게 꼭 필요한 말이다. 대학교 졸업을 앞둔 지금, 해야만 하는 일을 다 마쳤으니 앞으로의 인생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것들을 하며 즐겁게 살아가고자 한다.

(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나만의 속도로> 中 '결국 중요한 것은 느리더라도



어딘가로 향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나만의 속도를 찾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꼭 지금 나에게 해주는 말인 것 같아서 기억에 남는다. 모든 사람이 각자가 나아갈 길이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늘 마음 한편에는 ‘나만 너무 뒤쳐진 건 아닐까?’, ‘내가 가는 방향이 이게 맞나?’ 생각하면서 초조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이번에 이 책을 읽고 나의 목표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가 인생에 있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나의 중심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 외 나눈 이야기

- 최근 나에게 있어 불안/고통/두려움/힘듦/고난은 무엇인가?
-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에 기뻐하며,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 내가 최근에 좋아서, 시간과 돈이 아깝지 않을 만큼 열정적으로 한 일은?
- 이 책을 누구에게 추천하고 싶은가?
- 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 나는 나의 감정을 ‘관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에필로그]

이번 모임에서 각자 내가 지금 무엇에 힘들어하고 있으며, 지금 깊게 고민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미래에 대해 내가 불안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더욱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결국 지금의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확신을 갖고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책을 읽으며 앞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이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게 되어 어쩐지 다들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진]

###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 3차

<b>북클럽 팀명</b>	Book학생						
<b>운영일시 / 장소</b>	일 시 : 2023 년 05 월 10 일( 수 요일) / 장 소 : 도서관 C.square						
<b>참석자 명단</b>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b>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b>	<p>이번 모임에서는 장류진의 &lt;일의 기쁨과 슬픔&gt;라는 책을 읽고 미리 정한 질문에 대한 답을 자유롭게 하며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p> <p>[프롤로그]</p> <p>먼저 이 책을 선정한 이유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억이 선명해지는 시점부터 24살까지 학생으로 보냈던 우리가 곧 “직장인”이란 색다른 신분을 가질 예정이다. 곧 직장인으로서의 첫 발걸음을 내딛을 지금, 일이란 것에 대해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서로를 다독이고자 이 책을 선정했다. 일의 기쁨과 슬픔이란 직장인의 현실을 무척 디테일하게 그려낸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책을 읽고 준비한 질문에 대답해보면서 막학년들의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는 미래를 그려보려 한다.</p> <p>▶질문1) 얼마 지나지 않아 첫 직장을 가졌을 때 기대나 걱정, 꿈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p> <p>(신**) 처음엔 취직에 성공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벅차오를 것 같다. 그리고 비로소 사회 구성원으로서 스스로 자립해야 하는 시기가 왔음에 조금은 두려운 감정을 느낄지도 모른다. 현장실습이나 인턴 등을 통해 회사에 직접 출근하며 직무 경험을 쌓아본 적이 없기에 직장이란 단어는 나에게 아직 낯설다. 하지만 성실함을 겸비하고 늘 배우려는 자세로 임한다면 적응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또 미래의 내가 어떤 곳에서 일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곳만의 복지는 무엇일지, 근처에 맛있는 식당은 많은지, 출퇴근길 교통은 편리한지 등 상당히 궁금한 것들이 많다. 광고 기획자나 마케터가 되겠다는 포부를 지녔지만 실제로 취직을 해봐야 나와 잘 맞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광고인이 되겠다는 다짐이 유효하므로 추후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효과적인 광고 캠페인을 설계해 보고자 하는 것이 나의 꿈이자 목표이다.</p>						

(김\*\*) 4년의 대학교 생활을 마치고 첫 직장을 들어갔을 때, 우선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할 수 있다는 것이 기대가 된다. 하지만 과연 내가 생각했던 직무가 나에게 잘 맞을지, 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되는 것 같다. 첫 직장에서의 나의 꿈은 업무에 잘 적응해서 나의 아이디어가 실제 마케팅에 채택된 모습을 보고 싶다. 직장에서 업무 능력을 인정받고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 최소 중견 기업 이상으로 이직을 하고 싶다. 사실 계속 일할 생각은 없다.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고 돈을 모아 나중에는 해외에서 최소 1달 이상을 살아보고 싶다는 꿈이 있다.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걱정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현재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오\*\*) 나는 무슨 일이든 항상 내 능력을 의심하고, 내가 만든 결과물에 대해 만족을 잘하지 못하는데 첫 직장에서도 이런 자신 없는 모습들이 보일까 봐 걱정되는 것 같다. / 기대하는 점은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아도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일이 흘러갔으면 좋겠다..!

(박\*\*)

- 걱정: 내가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는 만큼의 워라벨을 지킬 수 있을까, 좋은 사수와 팀을 만날 수 있을까, 전화 공포증이 있는데 극복할 수 있겠지, 팬찮은 기업에 들어갈 것인가, 원하는 연봉을 받을 수 있을까, 직장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오는 사람도 많다는데 즐겁게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입사했는데 내가 원하는 직무가 아니면 어떡하지, 일이 잘 안 맞으면 퇴사해야 하나, 지금껏 놀기만 했는데 앞으로 주 5일 간 일만 할 수 있을까, 출퇴근길 버틸 수 있을까

- 기대: 첫 월급을 받으면 가족들이랑 좋은 곳 가서 외식하고 멋진 선물 줘야지, 월급 모아서 방 2개 있는 좋은 집으로 이사 가야지, 해외여행 다녀야지,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취미생활 하면서 일과 나의 삶의 경계를 뚜렷하게 만들어야지

▶질문2) 나의 '일' 계획표 만들기

그 외 나눈 이야기

- 나에게 일이란?

- 책 제목처럼 내가 생각하는 일의 기쁨과 슬픔은 무엇인가?

- 에피소드별 마지막 내용에 대해

- 각자 읽고 느낀 생각

[에필로그]

이번 모임에서는 머지않아 직장인으로서의 나의 미래를 상상하면서 걱정과 기대와 같은 감정을 공유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이외에도 소셜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의 조건을 수많은 숫자로 환산해 살아가는 청년들, 직장 내 갑질과 위라벨, 노동자와 피노동자와의 관계 등 사회에서 을이자 약자인 여성, 청년, 노동자들의 이야기들을 소셜로 접하면서 우리 사회 노동 시스템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사진]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 4차

북클럽 팀명	Book학생							
운영일시 / 장소	일시 : 2023년 05월 24일(수요일) / 장소 : CLC 1층 글로벌라운지							
참석자 명단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p style="text-align: center;"><b>토의 내용</b> (읽은 책을 중심으로)</p>	<p>이번 모임에서는 노가영, 김봉제, 이상협의 &lt;2023 콘텐츠가 전부다&gt;라는 책을 각자 읽고 미리 정한 질문에 대한 답을 자유롭게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p> <p>[프롤로그]</p> <p>먼저 이 책을 선정한 친구에게서 해당 책을 고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등 많은 OTT가 급성장하게 되면서 콘텐츠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매년 수많은 콘텐츠가 탄생하고, 각광받는 시대에 올해 중요 키워드와 주요 이슈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선택했다. 광고홍보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북클럽 모임인 만큼, 마케터 직무와 연관된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다. 트렌드를 빠르게 적용해 보는 것도 마케터의 중요한 역량 중 하나이기 때문에 &lt;2023 콘텐츠가 전부다&gt; 책을 선택하게 되었다.</p> <p>▶질문1) 최근 6개월 이내(22.12~23.05) 주목받은 콘텐츠 하나를 선정하고,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서술하세요.</p> <p>(박**) 팝업스토어, 코로나19가 어느정도 일상처럼 여겨질 때부터 사람들은 이전과 같은 생활을 이어가기 시작했고, 동시에 새로운 문화가 탄생했다. 바로 팝업스토어에 방문하는 것이다. 팝업 스토어란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에 인기 있는 특정 제품을 일정기간 정해 놓고 그 기간 동안 판매하고 사라지는 매장을 뜻한다. 정해진 기간에만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희소성이 높고 호기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방문객이 많아지고 SNS를 통해 입소문 타면서 Z세대들에게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p> <p>사람들은 팝업 스토어의 잘 꾸며진 공간을 보고 예쁜 사진을 찍거나, 무언가를 만들고 체험하며 기억에 남는 경험을 한다. 또한, 이곳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공유하면서 더 많은 방문객을 모으게 된다. 이제 브랜드 뿐만 아니라 아이돌, 영화, 게임 등의 업계에서도 팝업 스토어를 여는 추세이므로 앞으로의 전망도 밝을 예정이다.</p>							

(오\*\*) 김은숙 작가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22년 12월 30일에 공개된 파트 1부터 23년 3월 10일 공개된 파트 2까지 온라인상에서 짤, 패러디, 등장인물에 대한 분석 등 다양한 콘텐츠로 파생되며 뜨거운 반응으로 주목받았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수의 아시아권 국가에서 시청 1위를 차지할 만큼 넷플릭스 최대 흥행작이라고도 평가된다. 유년 시절 폭력으로 영혼까지 부서진 한 여자가 치밀하게 준비한 처절한 복수와 그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는 스토리가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런 복수라는 소재로 극을 이끌어 나갔던 영화나 드라마는 정말 많았다. 그런데 그 드라마들과 더글로리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 나는 이를 이 드라마가 세상에 나온 시기 상황에 주목해보았다. 21년부터 연예계에서 학폭으로 인한 논란이 정말 떠들썩 했던 적이 있다. 가수, 배우 뿐만 아니라 PD, 운동선수 등 많은 이들의 학교폭력 사실이 꾸준히 폭로되었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학교폭력은 시간이 지나도 절대 용서될 수 없고, 그게 언제가 되었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그야말로 사회 절대 '악'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학폭에 대한 분노에 대한 시청자들의 마음이 커질 때로 커졌을 때, 이 드라마가 세상에 나왔고, 사람들은 드라마를 통해 학폭을 용인한 권력에 대한 분노에 격하게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주목받은 이유는 사회적 배경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신\*\*) 297만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콘텐츠 <차린건 쥐뿔도 없지만>은 작년에 채널을 새로 오픈하여 시작부터 큰 화제를 모은 취중토크쇼이다.

호스트 이영지의 집에 직접 가수나 배우 등이 출연하여 술과 안주를 나누는 이 콘텐츠의 최고 조회수는 BTS 진이 게스트로 나온 회차의 1928만회이며, 예고편을 비롯한 몇 가지 영상을 제외하면 대부분 500만회를 가뿐히 넘긴다. 'MZ세대 대표' 수식어에 가려져 있지만 사실 이영지 특유의 시원시원한 입담과 재치가 출연자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에게 편안한 인터뷰 환경을 마련한다. 또 '술'이라는 요소를 가미해 처음 만난 게스트들과도 딱딱하지 않게, 어느 정도 솔직한 모습들을 보여주어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좁은 집안에 같이 부대껴있는 카메라 감독과 스태프 작가들의 호탕한 리액션도 매력 포인트다. 이런 다양한 것들이 한데 모여 독특하고, 시끄럽고, 웃기고 때로는 진지한 콘텐츠가 완성되는 것이다. 영상을 챙겨보는 나로서도 다음엔 어떤 게스트가 나올지 항상 기대되곤 하는 그런 콘텐츠이다.

(김\*\*) 올해 1월, 공식 출시 이후 3주 만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만 500만 회 이상 다운로드 된 화제의 SNS 앱 '본디'를 소개하려 한다.

아바타와 나만의 방을 커스텀 해서 꾸밀 수 있다는 점, UI, UX 디자인이 힙하다는 점, 50명 이내의 가까운 지인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본디' 어플의 인기 배경으로 꼽혔다. '진짜 찐친만의 아지트'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본디는 폐쇄성의 SNS이다. 폐쇄성은 본디가 흥행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수년간 인스타

그램, 페이스북 등 개방형 SNS에 지친 2030세대들이 '본디'로 몰린 것이 그 이유다. 즉, 모르는 이들과 감정 소모를 계속하는 개방형 소셜미디어에서 받은 피로를 최소화하려는 욕구가 반영된 것이다. 본디는 개인정보 유출 이슈 등이 발생하면서 이용자가 대거 이탈하면서 '한 달 천하', '14일 천하'와 같은 말이 나오긴 했지만,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 피로감을 느끼는 MZ 세대 가운데 명상 등의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한 접근이라 생각한다. 또한, 기존 메타버스 플랫폼의 경우 10대 유저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본디'의 경우 '어른들'까지 메타버스에 친숙하게 만들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질문2) 콘텐츠 과잉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며,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박\*\*) 목표로 하는 소비자를 충분히 분석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5060을 시청자로TV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려 할 때 5060 세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들 사이에 유행 중인 콘텐츠가 있다면 무엇인지, 다른 방송사의 어떤 프로그램을 잘 보고 있는지 등을 충분히 조사해야 한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그래야 그들이 우리 프로그램을 소비하기 때문이다. 2030을 대상으로 트로트 프로그램을 제작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 대부분의 2030은 관심이 없을 것이다. 물론 기획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소비될 수도 있으나, 엄청나게 촌스러운 기획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영화, 드라마, 게임과 같은 콘텐츠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콘텐츠를 소비할 대상이 원하는 것을 알아내고 그것을 제공해야 콘텐츠 과잉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오\*\*) '사회적 이슈 반영'이다. 앞서 더 글로리의 흥행 이유에 대해 사회적 이슈였던 연예인들의 학폭논란들이 시청자들이 더 글로리의 학폭 피해자의 복수 스토리에 공감을 할 수 있게 했고 이에 주목받는 콘텐츠로 거듭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나는 드라마, 영화라는 콘텐츠가 우리가 사는 세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를 반영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콘텐츠의 올바른 방향성이라고 생각하고, 콘텐츠 과잉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기억되는 콘텐츠가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신\*\*) '아이디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특색이다. 위에서 언급한 <차린건 쥐뿔도 없지만>과 비슷한 콘텐츠도 이미 많다. 처음이 아니다. 그러나 왜 성공했을까? 출연자가 홍보차 나온 것도 있지만 오히려 호스트 이영지가 재롱(?)을 부리고, 연예인들이 다른 콘텐츠보다 정제되지 않은 사실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도 한몫할 것이다. 어디 특별하게 잘 꾸며진 스튜디오가 아닌 실제 영지가 사는 집에서 촬영이 이루어진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비슷한 콘텐츠들이 많지만, 특히 화제를 끌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특색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매번 똑같은 사람들이 진부한 소재로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하는 콘텐츠들이 해마다 생겨났다가 금세 저버리는 이

유다.

(김\*\*) “스토리텔링”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 생각한다. ‘스토리’만이 SNS에서 확산될 수 있다. 개인 미디어가 훨씬 중요해진 지금 누군가에게 전달할 가치가 없는 정보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진짜 원하는 것을 담을 때 비로소 공감을 일으킬 수 있다. 시대적 흐름이 굉장히 빨라지고, 본격적으로 온라인 시대가 도래하면서 Market 3.0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사람 중심 마케팅이 시작되면서 ‘진정성’이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게 되었다. 진정성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스토리텔링”이 중요한 전략이 된다.

그 외 나눈 이야기

- 내가 콘텐츠를 만들어본다면 어떤 매체,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보고 싶은지
- 내가 생각한 최악의 콘텐츠는?
- 다른 나라 콘텐츠 중 기억에 남는 것 / 왜 기억에 남았는지

[에필로그]

책을 읽고, 책에서처럼 최근 주목받았던 콘텐츠가 무엇이 있었는지, 왜 주목받을 수 있었는지 생각해보면서 현재 콘텐츠의 트렌드를 파악해보고, 주목받을 만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지 생각하고, 이야기 나눠볼 수 있었다. 우리 모두 미래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가 될 예정이기도 하고, 현재 우리한테 가장 가까운 것도 콘텐츠였기 때문에 이번 활동에 진지한 내 생각도 정리해보면서 앞으로 어떤 콘텐츠 제작자가 될 수 있을지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다.

[사진]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 5차

북클럽 팀명	Book학생							
운영일시 / 장소	일시 : 2023년 05월 31일(수요일) / 장소 : 춘천 카페							
참석자 명단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마지막 모임인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의 북클럽 활동을 전체적으로 돌아보면서 나에게 북클럽 활동은 어떤 의미였는지 팀원들과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p>							
	<p>(김**) 독서 후, 팀원들과 나누고 싶은 질문을 통해 서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좋았습니다. 또한 평소에는 소설책만 자주 읽었는데, 이번 북클럽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지식 함양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책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명이 느낀 점과 의견을 나누며 폭넓게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p>							
	<p>(박**) 서로 다른 관심사를 가진 4명이 모여서 같은 책을 읽고 같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의미있던 활동이었다. 똑같은 질문이라도 다른 주제로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고, 활동하는 1시간이 짧게 느껴질만큼 즐거웠고 유익했다. 16년 동안 학교를 다녔고 이제 완전한 사회인이 되기 직전이라 많이 불안했었다. 하지만 이 활동을 통해 관련 책을 읽고 친구들과 이야기 나눔으로써 불안보다 기대가 커지고 열린 멋진 사회인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앞으로도 책을 읽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분석하고, 토의하면서 나의 지식을 넓혀 가고 싶다</p> <p>(신**) 언제부터 독서가 나에게 있어 '시간내서' 읽어야 하는 활동이 되었는지 스스로 반성하기도 했다. 북클럽을 통해 서로가 추천하는 책을 읽으며 가치관과 의견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소감이 아닌 식견을 넓힐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어 기쁘다.</p>							

(오\*\*) 사실 작년부터 책을 많이 읽게 되면서 이번 연도 목표 중 하나가 독서 모임을 해보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학기 중에 좋은 기회로 같은 과 동기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뜻깊고, 활동할 때마다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 활동하며, 내가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책들을 읽고 생각을 나눌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 우리 이번 북클럽 주제가 '미래'였는데 책과 활동을 통해 [미래 우리가 살아갈 지구의 환경/미래의 우리의 모습들/미래 콘텐츠]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생각해볼 수 있어서 주제를 잘 잡은 것 같고, 학기 생활 중에 중간중간 도서관에서 책 빌려 가며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준 우리 팀원들에게 고생했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

[사진]